



###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종봉 선사 '西光'

종봉 39년(1544) 밀양에서 태어난 선사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총명하였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사략(使略)을 가르치니 선사가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는 일이 귀한 일입니까, 천한 일입니까, 만일 귀한 일 같으면 마땅히 배우겠습니다"고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 일이란 배우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니, 선사가 "선한 마음으로써 업(業)을 삼을 것 같으면 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한 것입니다"고 말했다.

선사는 13세에 황간 송안정 여현 선생 문하에서 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맹자>를 공부하던 선사는 책을 덮고 "세속의 학문은 그 필필이 속절없는 것이구나. 온갖 인연에 얽매어 있으니 어찌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 하겠는가" 하고 일어나 작지사 신묵 화상에게 촉발하였다.

선사는 처음 <전등록>을 배웠다. 다 배우지도 않고 그 뜻을 깨달아 장로들도 선사에게 물게 되었다. 또한 18세에

虛室戶居觀衆妙(허실호거관중묘)  
天香桂子落紛紛(천향계자락분분)

서쪽(부처님의 광채) 바람이 불어오자 비로소 비 개이니, 높고 넓은 하늘에 한 조각 구름도 없다.

빈 선실에 고요히 앉아 모든 묘리를 생각하니, 천향의 계수 열매가 어지럽게 떨어지네.

운향(雲香) : 구름처럼 퍼져나가는 부처님의 법향

無思無慮又無牽(무사무어우무견)  
閑往閑來任自然(한왕한래임자연)  
只得溪山何事(지득계산호사)  
好隨年月度年年(호수년월도년년)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걸릴 것 없으니, 한가히 가고 한가히 와서 자연에 맡기노라. 산골짜기 사냇물에 머물러 있으니, 연기와 달을 따라 세월을 보내노라.

### 생각도 근심도 걸릴것도 없으니

### 한가히 가고 오고 자연에 맡기노라

승과에 급제 한 후 선사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당시의 쟁쟁한 문사, 대부분과 교류하게 되었으며, 유학자들과 교류는 삼십이 넘어서 끝이 났다.

묘향산에 주석하고 계신 청허 선사를 찾아뵙고 상종(性宗)을 배운다. 여기서 선사는 지금까지의 문장 유희는 단지 기어(綺語)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직 안심정성(安心定性)에 뜻을 두고 고행한 끝에 정법을 얻게 되었으며, 두타고행으로 3년 만에 그 정법(正法)을 터득하였다. 35세에 스승 청허 선사를 떠나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내고, 38세에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거쳐 43세 되던 해 봄 선사는 옥천산 상동암에서 정진하던 중 수미단 부처님 법신의 서광(西光)을 보고 무상(無常)의 법리를 깨달아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서광(西光) : 부처님의 광채

西風吹動雨初歇(서풍취동우초협)  
萬里長空無片雲(만리장공무편운)

선사의 가르침은 이와 같다. "어제 핀 꽃 오늘도 빈 가지뿐 인생도 그와 같은 법, 삼 역시 하루살이 같은데 광을(光陰)을 허송할 것인가, 너희들도 영성(靈性)을 갖추었는데 일대사(一大事)를 마치지 않으며 부처님도 다 마음 속에 있거늘 어찌 밖으로만 내달는가."

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떨어진 꽃을 보시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 남는 것과 같은 중생의 생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선사의 가르침은 청경(淸鏡) : 깨끗한 거울과 탁금(濁金) : 빛이 없고 광채가 없는 금이 원래는 이물(異物)이 아니며 혼파(渾波)와 담수(澍水)가 다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선사께서 광해 2년(1610)에 세수 67세 법랍 54세로 입적하였다.

선사의 법명은 유정(惟敬), 법자는 이환(惟幻), 법호는 종봉(鍾峯), 송운(松雲),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자호는 사명(四明)이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은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를 이루기위한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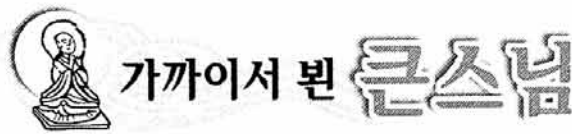
**서옹스님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은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국제학술회인 '무차선회'를 개최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인간주의를 초월한 '참사람주의'라고 보고 이 정신운동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스님은 한국불교 선종 진작을 위해 문을 개방하여, 범거량하는 남자들이 자유자재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12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한 서옹스님은 32년 당시 불법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던 고승 만암 대종사를 찾아가 득도했다. 스님은 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하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탄허 고암 월하스님과 한암 스님을 모시고 선수행을 하고, 39년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 임제대학을 41년 졸업했다.

스님은 62년 동국대 선학원장, 도봉산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 74년부터 79년까지 조계종 5대 종정을 역임했다.

## “참선은 자유자재한 참나 찾기”



### 서 옹 스 님 (백양사 방장)

흰눈이 수북이 쌓여 하얗게 변한 백암산(白巖山). 수 많은 흰 양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앉아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백암산에는 흰 양털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를 구하고 있는 남자들이 화두 삼매에 빠져 있었다. 절이 산자수명한 곳에 자리잡은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절은 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속에 찌든 중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준다.

경치 수려한 산에 절이 있고, 큰 절에는 큰 스님이 나오며 머물러 중생들의 마음은 언제나 푸근하게 한다는 말이 허투루 생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젊었을 땐 몸이 약해 60살까지만 살았었는데, 부처님 신심으로 살다보니 91살이 됐다. 산중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수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해. 허허"

깊은 산중에 계시기에 세상사 번잡한 소리에는 듣지도 자연의 조화에는 눈과 귀가

밝은 서옹(西翁)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은 선방 수좌들에게 5일마다 한번씩 소참법문을 하고, 공부하다 의문이 생길 때는 곧장 주석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재가불자들의 방문에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큰스님.

"자기 자신이 참모습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순수한 자리를 깨닫도록 해야 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으면 생사를 초탈할 수 있고, 우주가 곧 자기 생명체가 되어버려. 생문제를 해결할 것이 이것 밖에 없으니 잘 해봐. 참선하는 일은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 환희심으로 원력을 세워 성취해야 해"

스님은 중생들에게 무한한 자비심으로 씩 없는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계셨다. 스님이 인간의 참모습을 해결하는 참사람을 깨닫기 위해 강조하시는 방법은 오로지 인간문제를 근원적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확철대오(廓徹大悟)하는 '조사선(祖師禪)'이다. 선정을 닦음으로써 해탈을 얻고자 했던 선은 역대 스님들의 수행방법이었다.

왜 조사선인가.

"조사선은 인간의 생사와 최악이 없이 자유자재한 참모습을 완전히 해결했으며, 현대 인간상이 파멸에 온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자유자재하고 자비로운 실상이야. 생사문제의 해결은 화두(話頭)가 열쇠이지. 죽을 날짜가 코앞에 닥친 시형 수가 도망가듯이, 딴 생각을 겨를 없는 사형수처럼 1700 공안(公案) 화두에 들어 '이놈이 뭐냐' 지꾸 의심하면 긴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서 의식 자체를 초탈해버리는 눈이 일시에 열려. 그래서 자기 생명체 즉 참 자리가

때 인간주의 '욕망'으로 흐르는 세계를 구제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참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참사람이란 상하, 귀천, 상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어떤 막힘도 없이 본래 면목에 투철한 사람을 말하지. 그러나 자각한 사람의 참모습이야. 자아를 초월한 본성자리요. 인간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드러낸 본래의 자기 자신이지. 본래 자기의 모습이 참사람이니 무명(無明)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해 진실한 인간상인 '참나'

### “본래 면목에 투철하면 참사람

### 욕망으로 흐르는 세상 구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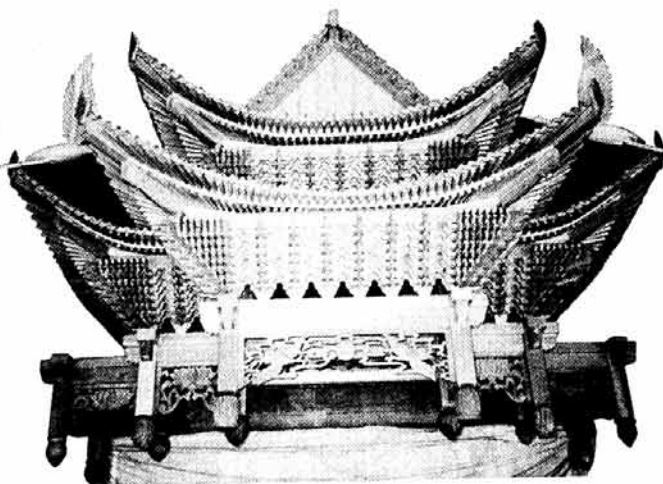
살아나는 이치인 것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영혼 절대적 그 자리가 절대 불변하지. 겁데기는 같지만 내용 경계는 달라. 삶과 죽음에 몰리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구애받지 않아. 말과 글은 욕망문에 불과하니 화두 참선을 해야 해. 누구든지 화두참선을 지극히 하면 생과 사를 벗어나 무엇에도 걸림 없는 영원히 자유자재한 참나를 찾을 수 있어"

스님이 70년대부터 절기차게 추창하시는 '참사람'은 당나라 고승 임제 의현선사가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스님은 참사람을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할

를 되찾으면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해. 그래서 참사람은 참으로 자유자재하고 절대 평등하며 대자대비하지. 우리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지"

조사선이 뜻있는 불자를 누구나 참구할 수 있는 보편적 참선법이기도 바라는 스님의 간절한 소망은 98년부터 고불총림에서 지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 데 모여 서로의 경지를 듣고 답하는 무차선회(無差禪會)를 2년마다 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위기에 처한 조사선의 종지를 세계에 인식시켜,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 누리공방



불단 · 달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신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기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정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뾰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르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관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우리 몸의 독소가 만병의 근원

## 기적의 미라보타 플러스

독소를 제거해 줌으로 나타나는 효과

- 간질환** : 간염, 간경변, 지방간 등 간기능 저하 및 급만성 간질환
- 급만성위장병** : 급성 위장 장애는 그때마다 복용으로 치유되고, 만성은 1월 3회 정기적 3-12개월이던 신호한 효력 있음.
- 부인병** : 월경불통, 월경질순 2-5주 이상으로 치유
- 출혈** : 혈치질, 비출혈은 3-5일 내외로 중지되며 1-3개월이던 원인적 치유됨
- 만성변비** : 투약을 조절하여 독을하지만(종합병원 임상 99%) 매우 심한 환자는 1회 3-15점술
- 알콜중독** : 2회 복용으로 특효. 술로 인한 제반 증상이 치료 또는 호전됩니다
- 약물중독** : 금상약물중독자에 1-2주 복용시 제병상의 치료 및 후유증을 해소시켜 준다
- 마약중독** : 경미한 중독자(1-2년) 24시간 OK, 중중한 중독자(2-5년) 48시간 OK, 5년이상 중독자 72-144시간 OK
- 식중독** : 식중독 발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99% 치유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80%까지 저하됨
- 농약중독** : 위약에 중독된 개가 죽어갈 때 40점술 투약하면 15분이던 소생함
- 연탄가스중독** : 중독시 40점술을 물에 혼합하여 복용 후 15분이던 회생하고 후유증 없음



생기 독소는 누구나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라보타 플러스로 치료해 보세요.

특히, 술로 인한 간질환 환자는 꼭 드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전화 : (055)972-4205

미라보타 플러스